

일본 경제 동향 (2014. 4월)

< 목 차 >

I . 일본 경제 지표	1
II .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경기회복세 둔화	2
2. 무역적자폭 확대	7
3. 소비세 인상 후 저주가·저금리, 환율은 엔저가속 전망	10
4.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양극화 현상	12
III . 일본의 주요정책	13
1. 소비세 인상 영향 및 전망	13
IV 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5
1. 대일수출 침체터널에서 탈출	15
2. 일본인투자 증가세로 반전	18
3. 한일 방문자 수 변화	20
V . 참고 자료	21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21
2.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	23

I. 일본 경제 지표

< 일본경제 주요지표 >

구 분	2012	2013	2013		2014	2014		
			3/4	4/4	1/4	1월	2월	3월
GDP증가율(연율,%)	1.4	1.5	0.9	0.7(P)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=100)			108.8	111.5	-	115.2	113.4	-
광공업생산증가율(%)	0.6	△0.8	1.7	1.9	-	3.8	△2.3	-
소비자물가 전기비	△0.1	0.4	0.4	0.3	-	△0.3	0.1	0.3
상승율(%) 전년 동기비	△0.1	0.4	0.7	1.1	-	1.3	1.3	1.3
실업율(%)	4.3	4.0	4.0	3.9	-	3.7	3.6%	-
수출(조엔)	63.7	69.8	17.8	18.1	17.5	5.3	5.8	6.4
수입(조엔)	70.7	81.3	20.6	21.8	22.4	8	6.6	7.8
무역수지(조엔)	△8.4	△11.5	△2.8	△3.7	△5.0	△2.8	△0.8	△1.4
경상수지(조엔)	4.8	3.3	1.4	△1.4	-	△1.6	0.6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9.8	13.2	4.7	3.1	-	1.3	0.6	-
환율	달러	80.1	97.7	98.9	102.8	103.9	102.1	102.3
	원화(100엔)	1,413	1,123	1,139	1,039	1,022	1,049	1,047
금리(10년물,%)	0.78	0.72	0.77	0.64	0.625	0.66	0.60	0.62
주가(닛케이)	9,612	13,651	14,128	15,388	14,958	15,578	14,618	14,695

주: 증가율은 전기비, (P)는 2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□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둔화

- '14.2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3.4로 전월대비 1.8p 하락

□ (소비자물가) 엔저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요인

- '14.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.3% 상승

□ (무역수지) 무역적자가 지속되면서 적자폭도 확대

- '14.3월 무역수지는 △1.4조엔으로 전월대비 0.6조엔 증가

□ (환율) 엔저 지속

- '14.3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2.3엔으로 전월대비 0.2% 엔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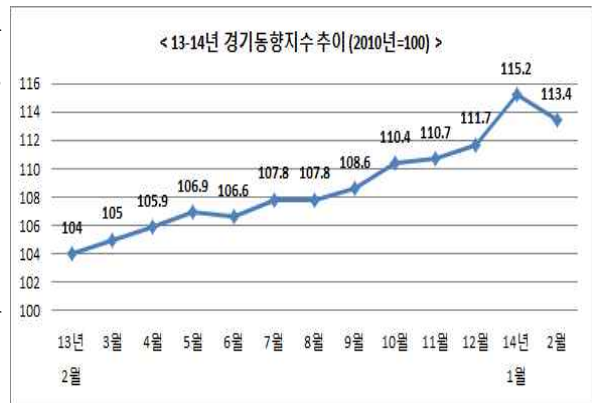
* '14.3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47원으로 0.2% 엔저

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경기회복세 둔화

□ (총 합)

- 일본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‘14.4월 이후 소비세 인상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
- ‘14.2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3.4로 전월대비 8개월 만에 1.8p 하락하였으며, 선행지수도 108.5로 전월대비 4.6p 하락하여 6개월 만에 악화
- ‘14.4월 닛케이 QUICK단칸에 따르면, 기업의 경기체감도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(DI)가 개선되고 있어,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악화 에 대한 우려는 약해질 가능성



자료:내각부

□ (전 망)

-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냉각은 피할 수 없으나,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
- ‘13년 말의 긴급경기대책, 수출증가,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하강 효과는 다소 완화될 전망
- 그러나 IMF는 2014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.7%에서 1.4%로 하향 수정

□ (시사점)

-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의 소비위축이 대일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대책으로 일본이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할 경우, 엔저가 가속되어 대일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

□ **[GDP]** '13년 GDP성장율은 1.5%로 '12년보다 0.1%p 상승

- '13년 일본의 실질GDP성장율은 1.5%로 '12년 1.4%보다 0.1%p 상승
 - '12년보다 민간설비투자는 마이너스 기여를 한 반면, 공공투자의 기여도는 5배, 수출입의 기여도 '12년보다 큼
- '13년 상반기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, 하반기에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로 성장률은 크게 둔화
 - '13년 1~2분기에는 연율 4% 이상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, '13년 3~4분기에는 1%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

< 일본의 GDP 및 주요 구성항목별 기여도 >

구 분	2012	2013	2013			
			1/4	2/4	3/4	4/4
GDP증가율(연율,%)	1.4	1.5	4.5	4.1	0.9	0.7
내수기여도(%P)	2.3	1.9	2.8	3.6	2.9	2.9
민간소비지출	1.2	1.2	2.6	1.6	0.5	1.0
민간주택투자	0.1	0.3	0.2	0.1	0.4	0.5
민간설비투자	0.5	-0.2	-0.5	0.6	0.1	0.4
공공투자	0.1	0.5	0.6	1.2	1.4	0.4
외수기여도(%P)	-0.9	-0.4	1.7	0.5	-2.0	-2.2
수출	-0.0	0.2	2.4	1.7	-0.4	0.2
수입	-0.9	-0.6	-0.7	-1.2	-1.6	-2.4

자료: 일본 내각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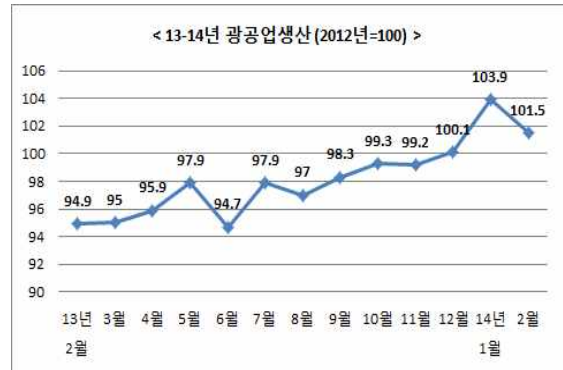
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2	2013	2013		2014			
		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
전기비	1.4	1.5	0.2	0.2	-	-	-	-
(전기비연율)			(0.9)	(0.7)	-	-	-	-
(전년동기비)			(2.3)	(2.6)	-	-	-	-

자료: 일본 내각부

□ [광공업생산] 대설 영향으로 감소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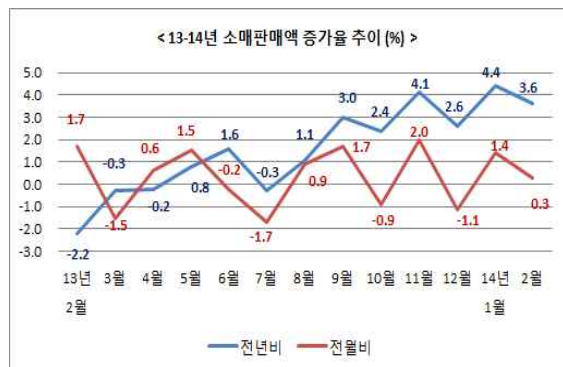
- ‘14년 1월에 호조를 보였던 광공업생산은 2월에 들어 전월대비 2.3% 감소
 - 수요 감소의 요인보다는 ‘14.2월 대설 영향에 의한 자동차공장의 조업중단 등이 주된 원인
 - 15업종 가운데 11업종의 생산지수가 하락하였으며, 특히 수송 기계공업, 범용·생산·업무용기계공업의 하락 폭이 큼
- 내각부는 월례경제보고에서 ‘14.2월의 광공업생산지수 등 최근의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하여,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 영향 등으로 생산이 회복상태에 있다고 판단



자료: 경제산업성

□ (소 비) 가수요의 반동 영향 가시화

- ‘14.2월 소매업판매액은 전월대비 0.3% 증가(전년동월대비 3.6%)했으나 1월보다는 증가율이 둔화
 - 에코카 보조금의 효과로 자동차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,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이 2개월 만에 증가
- 내각부는 월례경제보고에서 ‘14.2월중 소매종합지수와 실질소비지출이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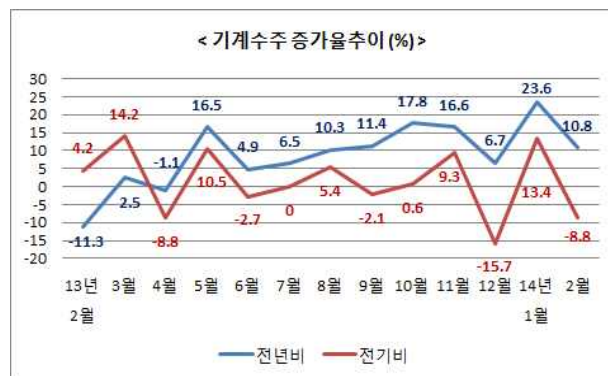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제산업성

-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상황에 관한 히어링 조사결과,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으로 소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□ [설비투자] '14.1월 기계수주액 급증에 대한 반동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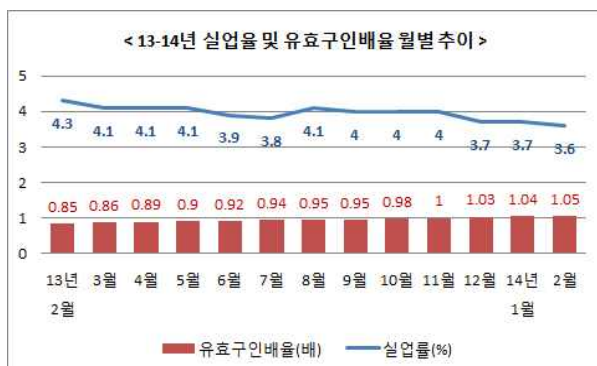
- '14.1월 13.4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기계수주액이 2월에는 전월대비 8.8% 감소
 - 기계수주액 감소 이유는 '14.1월의 급증에 대한 반동요인이며, 특히 화학, 기계가 큰 폭으로 감소
 - 업종별로는 조선, 철강, 자동차 업종이 증가하였으나, 제조업 전체의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
- 내각부는 월례경제보고에서 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 출하액이 증가하고 있고, 「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」에 의한 '14.1분기 제조업설비투자계획이 증가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향후 기업수익이 개선되어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
 - 일본은행의 '14.3월 단칸(短観)조사에 따르면, '13년도 경상이익은 2년 연속 증가하였고, 업황 판단도 개선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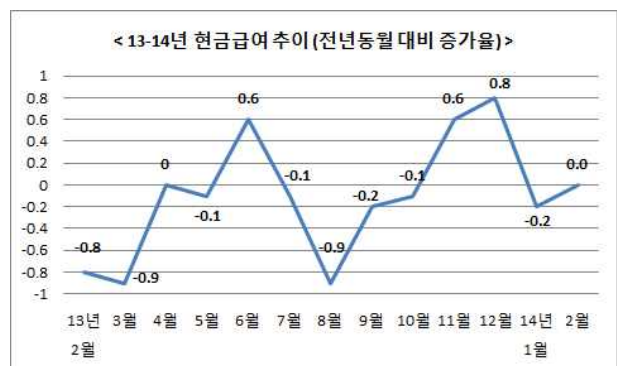
자료: 내각부

□ (고용) 착실하게 개선되고 있음

- '14.2월의 완전실업율은 3.6%로 1월보다 0.1%p 저하
 - 노동력 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,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
 - '14.2월의 신규구인인력 증가와 함께 유효구인배율도 1.05로 1월보다 0.01p 상승
- 노동 수급의 팽박으로 현금급여 총액은 회복되고 있으나, 춘투의 영향으로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



자료: 후생노동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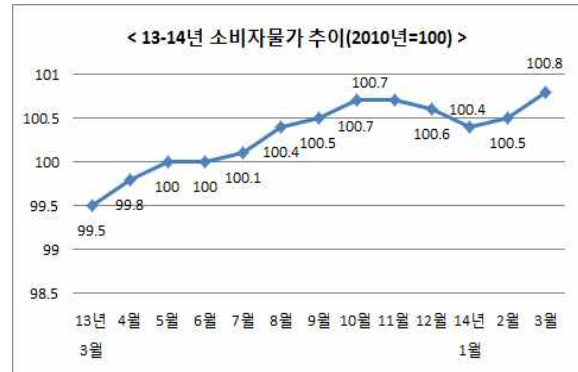
자료: 후생노동성

□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10개월 연속 상승

- '14.3월의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100.8로 2월보다 0.3% 상승(전년동월비 1.3% 상승), 10개월 연속 상승

- 엔저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나, 엔저효과는 약해지고 있음

- 소비세 인상 이후 동경도의 4월 소비자물가(중순 속보치)가 전년동월대비 2.7%상승하여, 3월에 비하여 1.7% 상승, 소비세 인상분이 거의 반영된 것으로 조사됨



자료: 총무성

-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에는 진료비, 수업료 등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, 소비세 인상이 3월에 비해 1.7%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함

2. 무역적자폭 확대

□ (총 합) '14.3월 무역적자는 1.4조엔으로 2월보다 증가

- 무역수지는 21개월 연속 적자
- 무역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수출도 6,4조엔으로 2월보다 10.3% 증가했으나, 수입이 7.8조엔으로 18.2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임
- 국가·지역별로는 對중국과 對EU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(중국: △1,130억엔 → △5,514억엔, EU: △375억엔 → △1,021억엔), 對미국 흑자규모는 확대(4,834억엔 → 5,514억엔)

< 2014년 3월 일본의 수출입 (단위: 조엔, %) >

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수 출	69.8	9.5	5.8	9.8	11.5	6.4	1.8	10.3
수 입	81.3	15	6.6	9.0	-17.5	7.8	18.1	18.2
무역수지	-11.5	4.5	-0.8	0.03	-2.0	-1.4	-1.1	0.6

주 : 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조엔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출) 수출증가율 둔화와 함께 수출물량도 감소

- '14.3월 수출증가율은 2월보다 10.3% 증가하였으나, 전년 동월대비로는 1.8%로 크게 둔화되었음
- 수출증가율은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나, 수출물량은 2.5% 감소하여, 엔저의 J커브효과가 꺾이고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
- 전년 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TV수상기(34.3%), 섬유기계(32.3%), 광물성연료(31.6%), 음향기기(30.4%) 등임

- 5대 수출품목 중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(9.0%)와 철강(5.4%)이며,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원동기(-6.0%), 자동차부품(-5.6%), 반도체등 전자부품(-3.8%)임
- 주요 수출국가 중에서는 EU(10.3%), 중국(4.3%), 미국(3.5%)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, ASEAN(-2.3%), 한국(-6.2%) 으로의 수출은 감소

< 2014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자동차	104,150	12.9	8,585	4.0	10.2	9,170	9.0	6.8
2	철강	37,933	8.5	3,046	4.1	-0.3	3,668	5.4	20.4
3	반도체등 전자부품	35,526	6.4	2,695	8.7	4.8	2,941	-3.8	9.1
4	자동차부품	34,762	8.5	2,813	4.7	11.2	2,901	-5.6	3.1
5	원동기	2,520	11.4	2,187	8.1	19.2	2,290	-6.0	4.7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3월 일본의 지역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중국	126,287	9.7	10,749	27.7	24.6	11,560	4.3	7.5
2	미국	129,310	15.6	10,636	5.6	3.9	11,356	3.5	6.8
3	ASEAN	108,297	4.9	8,531	1.2	8.2	9,623	-2.3	12.8
4	EU	70,007	7.7	6,095	13.9	-0.3	6,453	10.0	5.9
5	한국	55,163	12.2	4,580	7.8	9.0	4,878	-6.2	6.5
6	대만	40,611	10.6	3,272	4.2	6.4	3,747	1.8	14.5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가수요와 엔저의 상승효과로 증가세 지속

- '14.3월 수입은 2월보다 18.2% 증가하여, 1월의 △17.5%에서 큰 폭으로 증가
- 수입물량은 11.6% 증가

- 최근 1년 이상 수출입 모두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, 특히 수입은 엔저를 배경으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음
- 전년 동월대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는 원동기(57.2%), 철강(53.1%) 등이 50%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, 항공기(47.4%), 자동차부품(41.7%) 등도 40% 이상 증가율을 보임
- 5대 수입품목 모두 수입금액이 증가한 가운데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45.9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주요 수입국가·지역 중에서는 對중국과 對미국 수입이 각각 27%, 25.2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對한국 수입은 8.5% 증가에 그침

< 2014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원유	142,408	16.3	12,545	3.0	-11.0	14,813	18.7	18.1
2	액화천연가스	70,568	17.5	6,686	11.4	-9.2	7,087	14.0	6.0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24,452	37.4	2,118	41.1	-18.4	2,662	45.9	25.7
4	의류·동부속품	32,480	21.2	1,892	-0.9	-22.7	2,651	8.6	40.1
5	석유제품	27,124	10.2	2,341	-14.1	-17.6	2,607	7.4	11.4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3년 3월 일본의 지역·국가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중국	176,502	17.4	11,856	5.7	-37.8	17,074	27.0	44.0
2	ASEAN	114,864	11.5	10,179	10.6	-6.6	11,231	16.0	10.3
3	EU	76,494	15.2	6,469	15.4	-7.5	7,473	15.4	15.5
4	미국	68,113	122	5,799	20.8	-11.7	6,246	16.7	7.7
5	사우디아라비아	48,633	11.1	4,213	1.8	-14.1	5,032	25.2	11.9
8	한국	34,966	8.1	2,835	-2.5	-15.5	3,036	8.5	7.1

자료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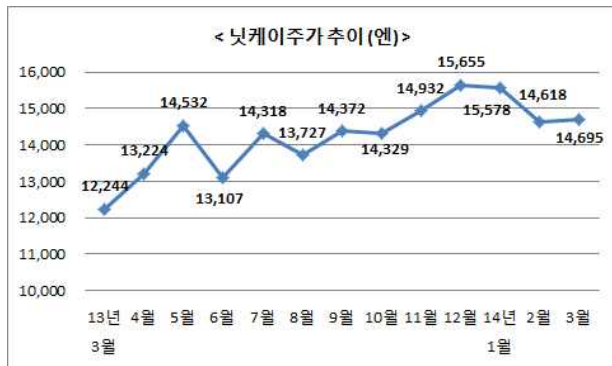
3. 소비세 인상 후 저주가 · 저금리, 환율은 엔저가속 전망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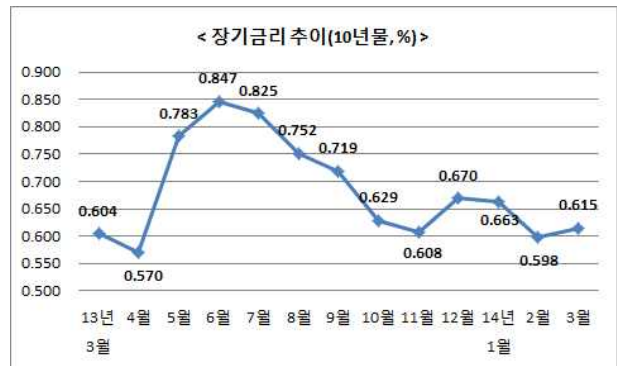
- ‘14.3월 평균 주가는 전월보다 5.2% 상승한 14,695엔
- ‘14.4.15일 기준, 13,996엔으로 하락

□ (금 리)

- ‘14.3월의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0.615%로 상승
- ‘14.4.15일 기준, 0.6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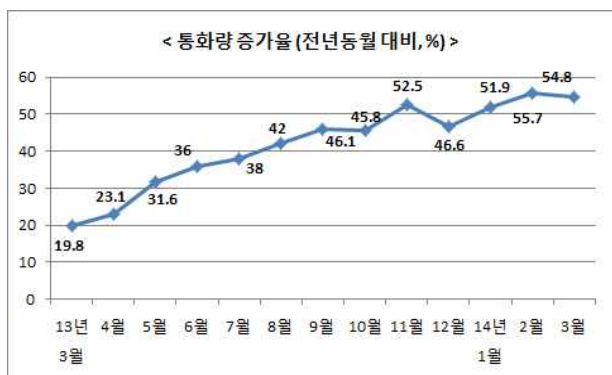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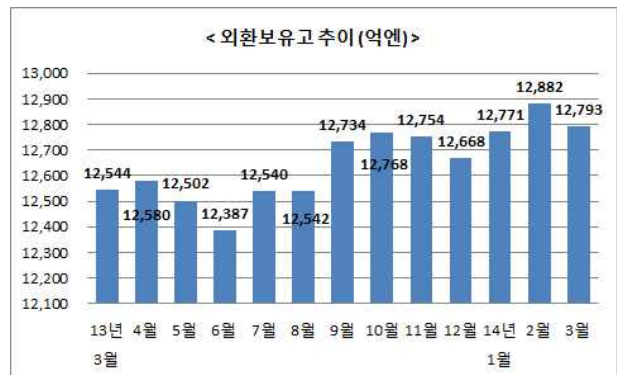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-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‘14.3월의 통화량(머니리베이스(평잔))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54.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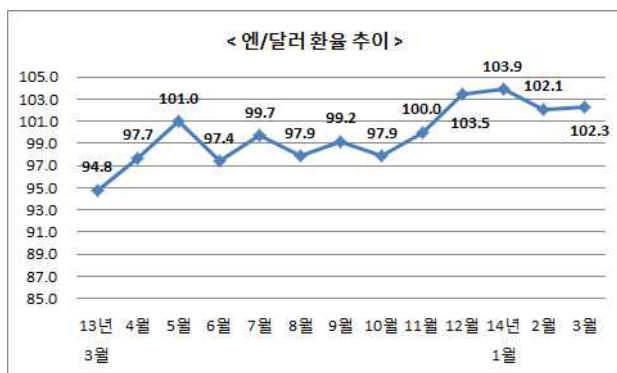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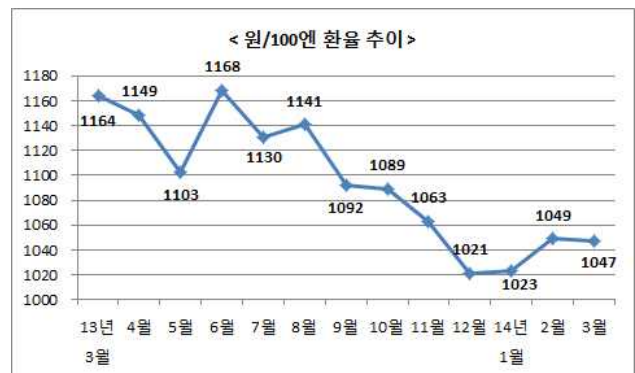
자료: 재무성

□ (환 율)

- ‘14.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02.3엔으로 2월보다 소폭 엔저
-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, 미국의 경기회복,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
 - 이에 따라 미일간 펀더멘털 격차,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등을 반영하여 엔저 경향이 강해질 전망
- 원화에 대해서도 엔저 지속
 - ‘14.3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47원으로 2월의 1,049엔에 비해 소폭의 엔저·원고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는 국가별 양극화 현상

□ (동 향)

- '14.2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,339억엔으로 1월보다 크게 줄었으나, 전년 동월대비로는 56.7%의 증가율을 보임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기준, 억엔, %) >

	2012	2013	2013										2014	
		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금 액	97,784	131,946	9,334	15,018	9,011	8,592	37,297	5,317	4,463	8,649	4,631	17,356	12,581	6,339
전년동기비	7.1	34.9	230.2	63.8	-9.5	-18.9	425.1	-29.0	-41.6	-17.8	-10.3	46.5	52.8	56.7
전기비	7.1	34.9	130.8	60.9	-40.0	-4.6	334.1	-85.8	-16.1	93.8	-46.5	278.7	-27.5	-49.6

자료: 일본 재무성

-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전년 동월대비 434.2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, 북미지역도 112.6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유럽지역의 투자는 급감(△91.7%)
- 국가별로는 미국이 94.8%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중국은 관계 악화영향으로 26.1% 감소

<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2년	2013년	2014.2월		
			금액	구성비	증가율(전년동월비)
대 세계	97,784	131,946	6,339	100.0	56.7
아시아	30,987	39,294	3,307	52.2	434.2
중국	10,760	8,855	498	7.9	-26.1
한국	3,197	3,209	438	6.9	52.6
북 미	28,628	45,698	2,328	36.7	112.6
미국	25,600	42,933	1,890	29.8	94.8
중남미	8,342	9,902	194	3.1	16.2
유럽	24,747	31,567	167	2.6	-91.7
대양주	8,838	5,895	246	3.9	2.5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특 징)

- '13년도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기업의 M&A건수가 전년보다 25% 증가, 과거 최고
 - * '13년도 일본기업의 M&A는 521건으로 과거 최고 기록
- 엔저 하에서 외국기업 매수를 위한 엔화환산금액은 증가하나, 주가상승 등을 배경으로 일본기업들의 M&A의욕이 강한 편이며, M&A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

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소비세 인상 영향 및 전망

① 소비세 인상 영향

- 이토추경제연구소에 따르면, 최근 개인소비동향과 과거 소비세 인상 경험 등을 고려, '14.1분기에는 가수요로 소비증가율이 정점을 찍고, 2분기에는 가수요의 반동으로 소비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
- 가수요가 내구소비재에서 비내구소비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, 소비증가율이 '13년 4분기 2.5%, '14년 1분기 2.5%, '14년 2분기 -3.5%로 전망
- '97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비교하면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, 소비세 인상 후 가수요의 반동에 의한 감소폭 모두 크게 나타남

② 소비세 인상 영향의 완화 요인

- '14.4월 소비세 인상 이후 가수요의 반동에 의한 소비 감소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(실질소득 감소) 영향으로 개인소비 등이 감소할 것이나, 이를 경기대책, 수출, 설비투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가 포인트

① 경기대책의 효과

- '13.12월 긴급경제대책으로 7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, 이중 소비세 인상대책으로 직접 창출되는 수요는 3.4조엔 정도의 공공사업과 보조금임
- 그러나 긴급경제대책의 효과는 자재, 노동력의 공급부족 등 공급측 요인으로 경기 부양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, 공공투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억제하고 개인소비의 위축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전망

② 수출

- 엔저 가속 외에 세계경제 회복 등이 수출에 호재로 작용
- 세계경제는 금융문제로 인한 중국경제의 불투명성 등 악재도 있으나, 미국의 경기 호조, 유럽경제의 바닥권 탈출 등 전체적으로는 회복될 전망

- 그러나 엔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함께 해외생산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, 과거의 엔저국면만큼 수출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③ 설비투자

-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이 증가하고 가동율도 상승하고 있어 확대기조가 유지될 전망
 - 소비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경황판단지수(BSI: 상승이라고 답한 기업과 하강이라고 답한 기업의 차)가 ‘14.2분기까지는 악화될 것이나, 3분기부터는 개선될 전망
 - 기업행동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‘14년도 실질GDP성장율이 전년보다 1.3%, 향후 3년간 평균 1.4% 증가하여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③ 경제성장률

- ‘14.1분기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영향으로 GDP성장률이 높아질 전망
- 그러나 IMF는 세계경제전망(World Economic Outlook)에서 ‘1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.7%에서 1.4%로 하향수정
 - IMF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위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2%의 인플레이션 목표, 재정재건과 구조개혁, 내수중심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

④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과제

-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율이 3%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소비세 인상분을 제하면 1% 정도로 오히려 1~2월에 비하여 둔화됨에 따라,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의 저하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음
- 경기가 회복되어 디플레이션 탈출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‘14.10월 이후에 가능하다면,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년 이내(‘15년 4월까지) 2% 달성은 어렵게 됨
- 일본정부가 ‘15년 소비세 재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할 정도의 경기확대가 이루어져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기조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선언 여부가 주목됨
 - 이와 관련, 최근 일본은행은 ‘13.4분기에 엔저에 의한 수입물가상승 요인이 아닌, 고용개선과 임금상승 등에 의한 수요증가요인이 소비자물가상승에 기여했다고 발표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수출, 침체터널에서 탈출

□ (총 합)

- ‘14.3월의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보다 2억달러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
- ‘14.3월의 대일수출은 27억달러, 대일수입은 47억달러

<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단위: 억달러, %) >

	2013년		14.2월			14.3월		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대일수출	347	-10.6	26	-9.6	-7.1	27	1.0	3.8
대일수입	600	-6.7	44	-10.6	10.5	47	-11.1	6.8
무역수지	-254	-2	-18	-3	6	-20	-6	2

주)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억달러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출)

- ‘14.3월의 대일 수출증가율은 2월보다 3.8% 증가한 27억달러
- 총수출증가율이 전월대비 15.8% 증가한데 비해, 대일 수출증가율은 낮은 편인데, 이는 엔저 하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월비	전월비	전년동월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
2014년 3월	1.0	3.8	5.1	15.8	18.1	18.2

- ‘14.3월의 대일수출 10대 품목 중 2월보다 증가한 8개 품목, 감소한 품목은 4개 품목임

- 증가품목은 수송기계(27.0%), 정밀화학제품(9.1%), 농산물(8.2%), 기계요소공구·금형(8.0%), 철강제품(3.3%), 전자부품(2.3%), 광물성연료(1.5%), 석유화학제품(0.8%), 등임
- 감소품목은 산업용전자제품(-21.4%), 가정용전자제품(-5.1%) 등임

< 대일 수출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	금액	증감율	
					전년동기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월비
	총계	34,694	-10.6	2,623	-9.6	-7.1	2,731	1.0	4.1
1	광물성연료	8,519	-1.6	542	-46.5	-24.6	550	-13.3	1.5
2	철강제품	3,689	-20.1	363	26.9	0.8	375	31.6	3.3
3	전자부품	2,826	-12.3	213	1.6	10.9	218	-9.8	2.3
4	산업용전자제품	3,261	-25.3	234	37.1	6.8	184	-12.0	-21.4
5	정밀화학제품	1,474	-5.6	121	7.4	0.8	132	10.3	9.1
6	수송기계	1,161	-19.4	100	28.9	-5.7	127	52.5	27.0
7	석유화학제품	1,788	-6.3	118	-20.7	4.4	119	-16.7	0.8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975	-8.7	87	19.6	-4.4	94	15.4	8.0
9	농산물	1,072	-10.3	85	7.7	-11.4	92	10.0	8.2
10	가정용전자제품	774	11.6	79	54.1	12.9	75	26.5	-5.1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입)

○ '14.3월 대일수입은 2월보다 6.8% 증가한 47억달러

- 총수입증가율은 전월대비 8.4% 증가한데 비해, 대일수입증가율은 6.8%로 낮은 편임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월비	전월비	전년동월비	전월비
2014년 3월	-11.1	6.8	3.6	8.4

○ '14.3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산업용전자제품(28.0%), 수송기계(20.0%), 철강제품(15.2%) 등 8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, 나머지 2개 품목은 대일수입이 감소

- 대일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기초산업기계(-17.2%), 석유화학제품(-6.3%)의 감소

<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3년		2014.2월			2014.3월	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	금액	증감율	
		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	총계	60,016	-6.7	4,447	-10.6	10.5	4,743	-11.1	6.7
1	철강제품	9,047	-13.7	679	-16.7	7.6	782	-11.4	15.2
2	전자부품	7,346	5.3	465	-9.0	-7.2	497	-17.1	6.9
3	석유화학제품	6,722	20.4	490	-25.9	-8.8	459	-28.0	-6.3
4	정밀화학제품	4,491	-9.7	372	-4.3	15.2	393	-6.2	5.6
5	산업용전자제품	2,813	-30.1	232	18.3	17.2	297	25.6	28.0
6	기초산업기계	4,820	8.1	354	-13.6	57.3	293	-14.7	-17.2
7	플라스틱제품	3,264	-17.0	233	-10.6	4.5	257	-7.9	10.3
8	정밀기계	2,837	-30.1	247	23.9	51.5	253	-17.7	2.4
9	수송기계	2,375	-10.2	190	-14.3	19.5	228	17.9	20.0
10	산업기계	2,371	-8.3	193	8.1	44.0	201	-12.9	4.1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2. 일본인투자 증가세로 반전

□ (동향) : ‘14.1분기,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

○ ‘14.1분기 중 일본의 대한투자는 746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분기 만에 증가, 24.7%의 증가율을 보임

- 다만,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.1%에는 미치지 못함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(신고기준, 단위: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2년		2013년		2013.4분기		2014.1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인투자	564 (12.4)	4,542 (98.4)	447 (-17.7)	2,690 (-40.8)	112 (-21.1)	727 (-41.2)	99 (-14.7)	746 (24.7)
전체 외국인투자	2,865 (5.8)	16,286 (19.1)	2,607 (-9.1)	14,548 (-10.7)	674 (-11.7)	3,802 (-25.2)	571 (-19.7)	5,062 (49.1)

주: ()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, 자료: 산업부, 외국인직접투자 통계

○ ‘14.1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특징은 작년의 감소에 대한 반동,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형투자로 이루어져 건수 면에서는 다소 감소했다는 점임

- 투자건수면에서는 112건으로 전년동기비 14.7% 감소

□ (최근 투자 및 산업협력 사례)

○ 미쓰비시화학이 삼양사와 합작투자법인 설립(‘2014.1.14)

○ JX홀딩스 4,800억 투자, 쇼와셀석유&다이하오일 5,000억 투자

○ 도레이 새만금산단에 ‘18년까지 3,000억 투자 예정

○ JFE, 현대제철의 주식 2% 취득(2014.1.23, 닛케이)

○ 요코하마고무, 금호타이어와 기술제휴 계약(2014.2.14.)

- 자본제휴도 염두에 두고 타이어의 환경대응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

□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

-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조사에서 '13년 한국은 중기적으로 유망한 국가 중 13위로 랭크(전년은 12위)
- 산업별로는 화학, 자동차, 전기전자, 일반기계 중 전기전자만이 10위에 랭크된 반면, 다른 업종들은 10위 이하에 랭크
- 한국에서 사업 강화 내지는 확대하겠다고 한 응답비율은 '12년 47.9%에서 '13년 35.1%로 감소
- 한국을 생산거점(생산위탁, 기존거점 강화, 신규거점 설립) 및 판매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모두 감소
 - 생산거점에 대해서도 모두 강화 내지는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모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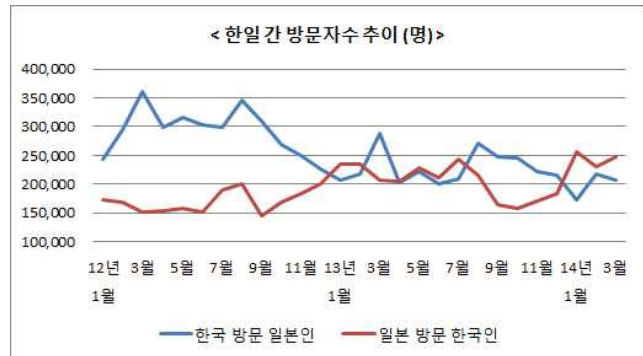
□ (시사점)

- 엔저 상황에서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국 투자와 비교하여 대한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, 고무적이기는 하나, 동시에 기업·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그널이기도 함
 - 한국의 투자환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한투자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만한 개선점이 미흡
 - 더욱이 엔저가 가속되고 있는데다, 일제하 한국인정용자에 대한 보상판결 등 한일 정치관계의 악화 등이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이 대응이 요구

3. 한일 방문자 수 변화

□ (일본인 방한) '14.3월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증가

- '14.3월 일본인 입국자는 247,262 명으로 2월보다 6.8% 증가
- 전년동기대비로는 14.4% 감소,
- '13.3월에는 일본인 방문자 수가 중국인 방문자 수를 상회하였으나, '14.3월에는 중국인 방문자 수(423,768명)를 크게 하회



□ (한국인 방일) '14.3월에도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감소

- '14.3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206,946명으로 2월보다 10.6% 감소
- '14.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인은 '13.12월부터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춤하여 완만하게나마 엔고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4.3월~4월)

□ 국내기관

- 『일본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평가』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4년 4월7일
<http://www.kiep.go.kr/skin.jsp?page=1&num=185667&mode=view&field=&text=&grp=publication2&bid=Pub0302&ses=USERSESSION&psize=10>
- 『엔저로 인한 한일간 소비관광 트렌드 변화』 한국무역협회, 2014년 4월6일
<http://iit.kita.net/>
- 『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(4월)』 한국은행, 2014년 4월4일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05481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1&menuNav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최근 소비세 인상후 한일 세계시장 경쟁심화』 산업연구원, 2014년 4월1일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176&state=view&idx=13901
- 『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경제전망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』 한국무역협회, 4월 1일
<http://iit.kita.net/>
- 『자동차 산업으로 부활 모색하는 일본 제조업』 LG경제연구원, 2014년 3월31일
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4&ctype=g&grouping_seq=01040200_475

□ 일본기관

- 『아베노믹스와 엔저, 무역적자, 일본의 수출경쟁력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4년 4월17일
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4j022.pdf>
- 『일본의 국제경쟁력 조사』 일본 경제단체연합회, 2014년 4월16일
http://www.keidanren.or.jp/policy/2014/028_honbun.pdf
- 『국제전개전략의 현상과 과제 :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배포자료』 경제산업성, 2014년 4월 10일
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tsusho_boueki/pdf/001_02_00.pdf

- 『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구조 : 한중일 비교와 전략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4년 4월8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jrireview/pdf/7342.pdf>
- 『제43회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(2013년 7월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4년 4월1일
http://www.meti.go.jp/statistics/tyo/kaigaizi/result/result_43/result_43.html
- 『2014년 성장전략의 주목점 : 정책실행과 과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관건』
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4년 3월29일
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pl140328.pdf>
- 『일본의 매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산업 창출 : 산업구조심의회 상무유통정보
 분과회』 경제산업성, 2014년 3월28일
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hojo/pdf/001_04_01.pdf
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(4월)

일자	주요 행사 내용
1	• 소비세 인상 (5%에서 8%로)
	• 후생연금기금제도개혁법 시행
	• 경제재정자문회의(총리실)
2	• 한일 국세청장회의(도쿄)
7	• 일호 정상회담(도쿄)
7~8일	•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 회의
7	• 2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(내각부)
	• 3월말 휴대전화계약자수(전기통신사업자협회)
8	• 2월 국제수지(재무성)
	• 3월 경기위치조사(내각부)
10	• G20 재무장관회의(워싱턴)
	• 2월 기계수주(내각부)
11	• 3월 기업물가지수(일본은행)
14	• 2월 산업기계수주액(일본산업기계공업회)
15	• 인구추계발표(13년10월10일기준)
16	• 아마리 경제재정대신 방미(19일까지)
	• 경제재정자문회의
	• 한일 국장급 회의
17	• 4월 월례경제보고(내각부)
	• 3월 소비동향조사(내각부)
18	• 4월 QUICK단기경제관측조사(단관)
21	• 한중일 30인회의(중국, 양저우)
21	• 3월 무역통계(재무성)
22	• 경제재정자문회의, 산업경쟁력회의 합동회의
23	• 오바마대통령 방문(일본,23~25), (한국25~26),(말레이시아26~28),(필리핀28~29)
24	• 미일 정상회담(TPP, 2국간 협력강화방안)
25	• 3월 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